

원치않은 집콕, 뒤엉킨 삶... 하루하루가 신천지

그림의 떡 vs 일터보다 갑갑
재택근무 두고 희비 엇갈려
업무+육아 '이중고' 호소도

온라인마켓 주문위해 새벽 대기
구매해도 이틀이면 식재료 동나
생활리듬 깨지고 평소보다 피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대구에서 시민들이 외식·외출 등을 자제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 식품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고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3월이 시작됐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봄은 사라졌다. 개학 연기와, 재택근무, 모임 제한 등 전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집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 '하루하루가 신천지'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완전히 뒤바뀐 대한민국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코로나보다 두려운 '집콕'

예정대로라면 모든 학교가 새로운 시작을 맞는 3월이지만 방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개학의 추가 연기 여부다. 대구지역이 먼저 개학을 오는 23일 까지 2주간 추가 연기를 결정하면서, 다른 지역들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어서다. 전례없는 사태에 학부모들은 패닉 상태다.

초등학생 아이 둘을 둔 엄모씨(46세)는 "봄이 시작됐는데 열기왕성한

남자 아이 둘과 집에 갇혀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게 코로나보다 더 공포스럽다"며 "다음 주는 한강 공원 같이 사람을 가까이 마주치지 않을 야외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국에 집밥 삼시세끼를 차려내는 것도 큰 일이다. 식재료를 사러 나가는 것도 어렵고, 온라인 마켓에도 사람들이 몰리며 주문이 쉽지 않은 탓이다.

성남시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양모씨(43세)는 "배달음식, 외식이 사라지니 음식과 간식을 냉장고 가득 채워놓아도 이틀이면 동이난다"며 "온라인 마켓 배송은 3일을 기다려야해서 매일매일 사재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모씨(42세)는

"온라인 마켓에서 밤 12시에 수량이 풀리기 때문에 새벽마다 필요한 물건을 급하게 주문하는게 일상"이라며 "밤에 잠을 못 자서 하루가 너무 피곤하다"고 토로했다.

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크다. 개학이 미뤄지면 수업 진도와 시험이 미뤄지고, 입시 일정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이모씨(51세)는 "방학이 길어지면서 아이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안한 상태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스스로 노력을 한다해도 그동안 쌓아온 생활 리듬과 패턴이 흐트러질까, 이번 학년만 괜한 피해를 볼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학원들은 강의를 지속하면서 부모들의 고민은 더 커졌다.

이 씨는 "학원은 계속 열려있으니 가고 안가고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친구들을 따라간다고 아우성인데, 안 보내자니 뒤쳐질까 불안하고, 보내자니 감염될까 불안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재택근무 일주일 지나보니

코로나19 감염 공포 속에 출근을 계속 해야하는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주부터 상당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결정하면서, 출근자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건실사에 근무하는 고모씨(40세)는 "회사에서 연차만 권장하고 있지만, 연

말 가족들과 계획은 여행을 아직 포기하지 못했다"며 "출근길에 라텍스 장갑까지 끼고 한가한 지하철에 오르면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나 하는 마음에 퇴사욕구가 울컥 올라온다"고 토로했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직장인들도 모두 행복할 것만은 아니다. 특히 아이를 둔 직장인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외국계 물류업체에 다니는 이모씨(45세)는 "회사에서 지난주부터 임원, 부서장급 이하 직원들에 재택근무를 권고했지만 한주간 견디 직원들이 이번주부터 회사를 나가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아이들 때문에 힘든 아내 눈치가 보이고, 특히 흡연자들은 흡연이 자유롭지 않으니 갑갑함이 크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 때문에 재택근무도 어려운 여성 직원들은 '가족돌봄휴가'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한명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부부 합산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홍보대행사에 근무 중인 김모씨(38세)는 "육아 도우미가 있어도 엄마만 찾는 아이들 때문에 지난 한주간 집에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차라리 아이 개학이 연기된 시점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확진자 속출에 멈춰버린 산업계 현대차·삼성·LG 등 피해 눈덩이

국내 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차단하기에 힘겨운 모습이다.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확산되면서 삼성·현대차·LG 등 국내 제조업체들도 감염 확산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감염 발생시 빠른 방역과 사업장 폐쇄 등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민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에 이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현대차 울산 2공장 도장부A 조합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울산 2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보건당국과 현대차는 이날 공장 라인을 멈추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특히 방역은 역학조사관이 지정한 폐쇄 범위(도장2부 7개소) 보다 확대해 울산 2공장 전체 방역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대비했다.

현대차는 울산 2공장의 정상 가동을 2일부터 시작하지만 대기 수요가 몰려 있는 제네시스 GV80과 팰리세이드, 싼타페 등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의 1일 생산대수는 1000여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앞선데 달진격으로 경기도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들어가는 납품 차량들 /연합뉴스

확진자 발생하면서 사업장 잇단 폐쇄 생산 차질에 선제조치 한계 등 우려

남양읍 현대차 사원 아파트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60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 사원 아파트는 남양 현대차 연구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LG디스플레이 사업장 내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사 사업장은 주말까지 사업장을 폐쇄된다. 이에 따라 구미 2사업장은 1일 저녁까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층은 3일 오전 10시까지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구미 2사업장은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Z) 플립' 등 폴더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곳이다. 일각에서 제품의 생산 차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은 1단지내 복직동의 한 은행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지자체 및 보건당국과 협조해 일부 구역을 3일간 폐쇄하고 정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직원 수천여명이 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제조업 특성상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완벽 차단은 사실상 어렵다"며 "코로나19는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시 빠른 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제네바모터쇼도 취소... 車산업 전방위 타격

스위스, 1000명 넘는 행사 금지
유럽 확진자 속출에 생산 빨간불
현대·기아차 공장도 영향 가능성



제네바모터쇼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취소 결정을 공지했다. /제네바 모터쇼 홈페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중 완성차 업계의 생산 중단 사태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도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0'에 이어 이번엔 유럽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스위스 제네바모터쇼도 취소됐다. 특히 세계적인 모터쇼가 취소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신차 출시 흥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바 모터쇼 사무국은 지난달 28일 발표문을 통해 2일 사전 언론 공개 행사가 예정된 제 90회 제네바국제모터쇼를 취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스위스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스위스 정부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및 행사를 15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같은 결정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는 BMW,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르노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이는 새 모델을 공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그러나 모터쇼가 취소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출시를 앞둔 신차 알리기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럽 자동차 생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MTA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에 있는 공장이 폐쇄됐다.

중국 코로나 여파도 뒤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쌓아둔 재고가 소진돼 가고 중국에서 다시 가져오는 데는 여러 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덴소와 후지쓰의 스페인 공장이 16일부터 자동차 오디오 부품 조립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산 부품 부족 때문이다.

이베스트증권 유지웅 애널리스트는 "유럽산 전장 핵심부품 조달이 끊기면 와이어링 하니스 때 보다 파급이 훨씬 클 수 있다"며 "현대·기아차 유럽 공장이 코로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부품사 중에도 이탈리아 등 유럽에 공장이 있거나 유럽 매출이 많은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